

부시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답사

조지 부시 대통령 각하,

따뜻한 환대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하를 처음 만났지만 오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진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비관주의자는 기회를 보고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낙관주의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하와 나는 분명히 낙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모든 도전과 난관을 기회와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건강과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